

[보도자료] 쿠팡, 지역 청년 인재 양성과 일자리 창출에 앞장선다

2021. 12. 28.



- 28일 군산대와 물류전문가 양성 및 청년 일자리 창출 위한 산학협력 업무협약 체결
- 교육과정 운영 상호협력, 채용 연계 청년 인턴십 제공 등 물류전문가 양성 위한 지원 적극 펼칠 것

2021. 12. 28 —쿠팡과 쿠팡풀필먼트서비스가 지역 청년 인재 양성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 상생에 앞장선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는 군산대학교와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물류전문가 양성을 위한 산학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신원식 전라북도 정무부지사, 박용근 전라북도의회 의원, 김동익 군산대학교 총장 직무대리, 정한모 쿠팡 정책협력 전무, 박익형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인사부문 상무 등이 참석했으며, 김윤덕 국회의원, 임종성 국회의원, 장경태 국회의원, 전용기 국회의원이 영상을 통해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다. 협약식에서 쿠팡풀필먼트서비스와 군산대는 미래 물류 혁신을 선도할 지역 청년 인재를 선발하고 이들을 물류전문가로 육성하는데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측은 청년 물류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을 위한 협력 활동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 쿠팡풀필먼트서비스는 선발된 청년 인재들이 다양한 경험을 갖출 수 있도록 특강, 세미나, 현장실습 등 물류 관련 교육과 제반사항을 적극 지원하고, 협약학과(군산대 국제물류학과) 소속 학생들을 대상으로 채용 연계 청년 인턴십 등 다양한 현장 실습의 기회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쿠팡은 인재 육성 뿐만 아니라 지역 일자리 창출에 투자를 지속하며 수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있다. 실제 쿠팡의 신규 물류센터가 들어선 곳마다 수 천 개의 지역주민을 위한 일자리가 생겨난다. 특히, 밀집도가 높은 수도권 지역이 아닌 상대적으로 물류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에 자원을 집중하며 균형 있는 지역발전에 앞장서고 있다. 더불어 고용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역 물류센터에 여성과 중장년층을 적극적으로 채용하는 등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발전 촉진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박익형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인사부문 상무는 “이번 협약을 통해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 물류전문가를 체계적으로 양성해 나가는데 양측이 긴밀하게 협력하고, 이러한 활동들이 산학협력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청년 인재 양성과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지역 상생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취재 문의 media@coupang.com